볼보자동차코리아 이윤모 대표이사(왼쪽)와 SK텔레콤이종호 모빌리티 사업단장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SK텔레콤

SKT IVI서비스, 국내 볼보 신차에 공급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길안내·커넥티비티 기능 등 제공

SK텔레콤이 볼보자동차에 자체 개발한 '차량용 통합 인포테인먼트(통합 IVI) 서비스'를 공급한다. 통합 IVI는 내년 하반기 출시 예정인 2022년식 일부 차종을 시작으로 향후 국내에 판매되는 모든 볼보자동차 신차에 기본 사양으로 탑재된다.

SK텔레콤은 볼보자동차코리아와 이 같은 내용의 통합 IVI 공동개발 및 협력을 골자로 한 '차량용 통합 인포테인먼트 서비스 기술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SK텔레콤의 통합 IVI가 국내에 시판되는 양산 자동차에 탑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IVI'는 차량 탑승자를 위한 주행정보와 즐길 거리를 통칭한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인 맥킨지는 오는 2030년 커넥티드카 관련 시장이 1조5000억 달러(약 1700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SK텔레콤 통합 IVI는 손 안의 스마트폰처럼 자동차가 스마트 모빌리티 디바이스화 되는 것에 발맞춰, T맵 오토·인공지능 플랫폼 누구·음악플랫폼 플로 등 자사가 보유한 서비스를 각 제조사의 차량 환경에 최적화한 UX(사용자환경)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앞으로 적용될 통합 IVI는 운전자에게 볼보자동차의 계기판과 헤드업디스플레이(HUD)로 T맵 실시간 길안내 및 커넥티비티 기능을 제공한다.

또 AI 플랫폼 누구를 적용, 운전자 음성을 이용한 T맵 길 안내와 백과, 스마트홈 등 인포테인먼트 기능과 함께 에어컨, 라디오 등을 제어할 수 있다. 플로 이용시에는 개별 선곡이 어려운 운전 중 상황에서도 음성만으로도 플레이리스트를 재생할 수 있다.

/김나인 기자

KT, 양자암호 통신기술 테스트 성공

데이터 암호화 전송에도 속도 유지

경기도 일부지역에 실제 적용
속도 저하·추가 지연없이 원활
'기업용 퀀텀 VPN' 테스트도 진행

KT 연구원이 국내에서 개발한 양자 암호 통신 기술이 적용된 5G 네트워크를 확인하고 있다. /KT

KT는 5G 데이터를 국내에서 개발한 양자 암호 통신 기술로 암호화한 뒤 전송하는 실증(필드 테스트)에 성공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테스트는 양자 암호 통신 기술을 적용한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단계다.

양자 암호 통신은 빛 양자(알갱이) 입자인 광자를 이용해 정보를 전달하는 통신 기술이다. 이 기술을 네트워크에 적용하면 통신 데이터를 단 한 번만 확인할 수 있는 상태로 전달할 수 있다. 만약 누군가 양자 암호 통신 기술이 적용된 네트워크에 해킹이나 감청을 시도하면 망가진 정보만 얻어간다.

KT는 자체 개발한 '양자 키 분배(QKD) 시스템'과 중소기업이 개발한 국산 '암호화 장비'를 '개방형 계층구조' 국제 표준에 따라 경기도 일부 지역 고객들이 실제 이용하고 있는 5G 네트워크에 적용했다.

양자 키 분배 시스템은 데이터 암호화를 위해 양자로 만든 '암호 키'를 통신망에 공급하는 시스템이다. KT는 이 시스템이 공급하는 양자 키를 이용해 암호화 장비가 데이터를 암호화해 전송하는 구조로 양자 암호 통신 네트워크를 설계했다.

KT는 양자 암호 통신 기술로 데이터를 암호화해 송수신했을 때 속도가 떨어지거나 추가적인 지연 발생되지 않고 원활하고 안정적인 통신이 이뤄지는 결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KT는 개방형 계층구조와 이에 대한 상세 기술 요구 사항을 국제 표준으로 2019년 10월, 지난 5월 각각 승인 받은 바 있다. 개방형 계층구조 표준은 양자 암호 통신망을 구축하는 구조를 국내외 사업자들이 여러 계층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으로 정의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기존에는 미국의 매지Q, 일본 도시바, 중국의 퀀텀씨텍 등 해외 제조사가 전체 양자 암호 통신 네트워크를 독점으로 구축하는 방식이었다.

아울러 KT는 VPN 서비스의 보안 강화를 위해 '양자 난수 생성 기능'을 KT 기업용 상품 '원박스'에 도입하는 '기업용 퀀텀 VPN' 테스트도 진행했다. 원박스는 기능별로 각각 운영하던 네트워크 장비를 소프트웨어 형태로 가상화해 하나의 장비처럼 관리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에 양자 암호 기술이 도입돼 상용화되면 KT의 기업 고객들은 퀀텀 VPN 기능으로 해킹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사내용 네트워크를 구축해 이용할 수 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모델들이 알뜰폰 파트너스 홈페이지 오픈 소식을 알리고 있다. /LG유플러스

"알뜰폰 요금제, 한곳에서 비교·상담 하세요"

LGU+ 'U+알뜰폰 파트너스' 오픈

LG유플러스는 자사 망을 사용하는 중소 알뜰폰(MVNO) 사업자들이 출시한 상품을 한 곳에서 비교하고 상담할 수 있는 'U+알뜰폰 파트너스' 홈페이지를 오픈했다고 11일 밝혔다.

U+알뜰폰 파트너스 홈페이지는 알뜰폰 통합 상품정보를 제공하고, 알뜰폰 사업자가 사업경쟁력을 갖도록 지원하는 LG유플러스만의 공동 브랜드이자 파트너십 프로그램이다. 이번에 LG유플러스가 연 홈페이지는 U+알뜰폰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공동마케팅 지원활동의 일환이다.

U+알뜰폰 파트너스에는 ▲스마텔 ▲에넥스텔레콤 ▲유니컴즈 ▲인스코비 ▲와이엘랜드 ▲큰사람 ▲머천드코리아 ▲에스원 ▲ACN코리아 ▲아이즈비전 ▲서경방송 ▲코드모바일 등 12개 알뜰폰 사업자가 함께 한다.

LG유플러스는 홈페이지 오픈을 기념해 이벤트를 연다. 5월 한 달간 U+알뜰폰 파트너스 홈페이지에서 이벤트 대상 요금제 가입 상담을 받으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이 제공된다. 가입을 하면, 신세계 상품권까지 추가로 제공한다.

6월 7일까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는 GS25, 이마트24 등 편의점에서 유심구매 비용 지원 이벤트도 진행한다.

홈페이지는 U+알뜰폰 파트너스 소개, 사업자별 요금제 소개, 이벤트, 고객지원 등의 메뉴로 구성돼 있다. 고객이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U+알뜰폰 상품의 특장점과 '이달의 요금제' 및 사업자별 핵심 요금제를 소개받을 수 있다. 또 기존에 전국 U+매장에서 판매중인 U+알뜰폰 파트너스사의 선불유심요금제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있다.

/김나인 기자

SK, 바이오 기업 '허밍버드 바이오 사이언스' 투자

글로벌 투자·오픈 이노베이션 지속 추진

허밍버드, 美·英 등 연구비 지원
항체신약개발 핵심 기술 보유

SK㈜가 항체 의약품 개발회사 투자로 바이오 분야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SK㈜는 11일 싱가포르 바이오 벤처 기업인 '허밍버드 바이오 사이언스'에 투자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중국의 바이오 벤처 '하버바이오메드'에 투자한 지 7개월 만이다.

항체 의약품이란 질환을 유발하는 단백질에 선택적으로 결합하여 항원의 작용을 방해하는 체내 면역 단백질로, 대표적 바이오 의약품으로 꼽힌다. 부작용이 적고 약효가 뛰어나 대형 제약사들이 앞다퉈 개발 중인 고부가 약품이다.

허밍버드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사노피 출신 전문가들이 혁신적인 항체신약 개발을 위해 2015년에 설립한 바이오벤처다. 본사는 싱가포르에 위치하고 있으며 미국 휴스턴에 임상개발센터를 두고 있다. SK㈜는 약 80억 원 규모로 진행된 이번 투자에 주요 투자자로 참여했다.

허밍버드는 항체신약개발의 핵심 요소인 최적의 항체 발굴 기술을 보유해 기존 항체 개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항체 개발은 항원을 동물에 주입하여 최적의 항체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탓에 특정 부위에만 선별적으로 결합하는 항체를 단시간에 만들기 어려웠지만, 허밍버드는 선정 부위에만 결합하는 항체를 발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허밍버드는 지난해 2월 미국 텍사스 암예방연구소에 1300만달러 연구비를 지원받고, 8월에도 영국 암연구소에 신약후보 물질 임상 1상 비용을 지원 받는 등 관심을 받고 있다.

SK㈜ 관계자는 "앞으로도 바이오·제약 혁신기술 확보를 위한 다양한 글로벌 투자와 오픈 이노베이션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juk@

기아車 "초기비용 부담 없이 구매하세요"

'초기비용 전액 할부 구매 프로그램'

기아자동차가 차량 구매 부담 완화를 위한 새로운 구매 프로그램인 '초기비용 전액 할부 구매 프로그램'을 출시했다.

11일 기아차에 따르면 '초기비용 전액 할부 구매 프로그램'은 ▲차량 가격 전액 할부 ▲차량 가격 25% 상당의 금액 추가 대출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특별한 구매 프로그램이다. 기아차는 이번 구매 프로그램 출시를 통해 차량 가격은 물론 차량 구매 시 발생하는 각종 초기 비용에 대한 고객 부담까지 크게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5월 중 기아차 차량을 출고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이 이번 구매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36/48/60개월 중 원하는 할부 기간을 선택해 할부 금액 및 추가 대출 금액을 원리금 균등 방식으로 상환하면 된다.

기아차가 초기비용 전액 할부 구매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또 차량 가격 25% 상당의 대출 금액에 대해서는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혜택도 제공된다.

/양성운 기자 ysw@